

전자재 수요 증가 기대 난망... 총선·대선이 변수

- 철근·시멘트 2% 안팎 감소, 레미콘·PHC파일 강보합 예상 -

전 병 수 | 건설경제 기자

내년도 건설자재 수급 상황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인 불안감과 변수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수요는 품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기초 자재의 경우 약보합 기조를 유지하나 고강도 콘크리트(PHC) 파일의 경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국내외 여건, 악재 많아

자재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호재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악재가 더 많이 눈에 띈다. 우선 국제 금융시장이 미국 경기 둔화, 이탈리아·그리스 등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불안하다. 국제 정세도 카다피가 사망하면서 리비아가 해방됐다고는 하나 중동 지역의 정세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석유, 금속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은 상승세가 다소 약화되지만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 국가의 원자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만 미국, 유럽 등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속 등 17개 품목의 상품 선물시세를 나타내는 CRB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2010년 1/4분기 359.43으로 상승 기조를 보이다 지난 8월에는 342.57로 떨어졌다.

국내 여건도 나아진 것이 없다. 제조업을 비롯한 서비스업의 경우 업황이 확연하게 개선되고 있지만 건설경기는 여전히 어둡다. 그나마 건설경기가 이 정도를 유지해 왔던 것도 공공부문의 물량이 있었기 때문인데 내년에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

올 건설 투자는 극도로 부진했다. 지난 상반기 건설 투자가 작년 동기 대비 10.3%나 감소했다. 건설 수주 증가율도 감소했다. 특히 공공부문이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부문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내년 건설 투자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감소세라고 보면 된다.

공공부문 건설 투자를 살펴보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2조 3,900억원으로 올해보다 7.9%나 줄었다. 올해 SOC 예산이 작년보다 3.2% 감소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황은 심각하다. 공공주택

부문의 예산을 올해보다 12.7% 늘어난 20조 3,250 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SOC 부문과 공공주택 부문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0.9% 증가에 그치고 있다. 건설 및 건설자재 시장 상황이 올해보다 별반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변수도 있다. 바로 선거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과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개 선거가 있을 때는 건설 관련 공약이 수반된다. 특히 대통령 후보로 나선 각 당의 주자들이 건설 공약을 쏟아낼 경우 자재 수요 심리는 고조된다. 개발지 주변에 민간 투자가 동반되며 수요 심리가 살아난다. 특히 철근의 경우 시장의 수요 심리에 변화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판매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자재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실수요의 증가 여부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시장 분위기 싸움에 작용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근 레미콘 가격 싸움 치열할 듯

이런 환경 속에서 수급자간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자인 제강사, 시멘트사 등 자재생산업체들과 건설사들은 가격 문제를 놓고 언제든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수요가 줄고 공급은 넘치는 시장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자재업체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다양한 판매 전략을 구사할 것이 틀림없다.

건설사들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등으로 인한 저가

수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모든 공정과 자재에서 원가 절감 요소를 찾아내야 할 입장에 있다. 공사의 이익은 내지 못하더라도 손실 폭은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시장 논리를 앞세워 강하게 자재업체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자재업체들 역시 어느 해보다 더 건설사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올해 격렬한 싸움을 벌였던 철근업체들은 내년에도 물러서지 않고 건설사와의 싸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와 레미콘 역시 만만찮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멘트와 레미콘의 경우 예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공급자간 갈등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공사용 자재 분리 발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 등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레미콘의 경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법정 투쟁까지 진행하고 있다.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업체도 이 문제로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또 수요가 극도로 침체될 경우 동종 업체간 가격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시멘트, 레미콘,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등의 품목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멘트는 지난해 가격 경쟁으로 인한 손실이 회사 경영을 위협할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레미콘이나 파일보다는 덤핑 판매 가능성이 낮지만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레미콘은 지역별로 가격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해마다 수요가 부족할 때면 가격 경쟁이 벌어지곤 했다. 이런 가격 경쟁은 경우에 따라 덤핑으로

2012년 주요 건설자재 수급 전망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철근(만t)	874	800	790
시멘트(만t)	4,540	4,450	4,350
레미콘(만m³)	11,500	11,000	11,000
PHC파일(만t)	411	420	430

주 : 2011년 및 2012년은 추정치임.

까지 이어지며 품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수요 감소 기초, PHC파일만 일시 증가

시멘트와 레미콘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두 품목의 경우 수요 증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국내 시멘트 생산량의 80% 이상을 레미콘업체들이 소비하기 때문이다.

시멘트의 경우 올해 수요는 작년보다 3% 가량 감소한 4,400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역시 감소 추세가 이어지며 올해보다 1~2% 정도 감소한 4,350만t 안팎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은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대부분의 생산업체들이 내수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수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클링커를 포함한 수출은 850만~900만t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최소 수준인 70만~80만t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수 가격이 올라 중국산 등이 경쟁력을 확보할 경우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레미콘은 올해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많은 1억 1,000만m³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수요 역시 1억 1,000만~1억 1,500만m³로 올해 수준보다 조금 나아질 전망이다. 올해에 비해 시장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의 올해 수요는 작년보다 2% 증가한 42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주상복합 등 건축물용 수요보다는 당진의 현대제철 등 플랜트용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내년 수요도 430만t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철근 수요도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보다는 철골조 건물의 신축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철근이 적게 들어가는 초고강도 콘크리트조 건물이 증가하는 등 건설 환경이 철근 품목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져 철근 수요는 해마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수요는 800만t 내외, 내년은 780만~790만t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CERIK